

Ethylene, 1월 무려 185달러 폭등

2003년 FOB Korea 톤당 555달러에서 2004년 1월 730-740달러로 올라

Ethylene 가격이 2004년 1월23일 FOB Korea 톤당 730-740달러를 기록해 2003년 12월26일 평균 555달러에 비해 무려 185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에틸렌 가격은 1월9일 FOB Korea 톤당 645-655달러로 100달러 가까이 폭등한 이후 16일 730-740달러로 90달러 폭등세를 기록했다.

다만, 중국 춘절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음력설 연휴가 겹치면서 아시아 에틸렌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1월 넷째 주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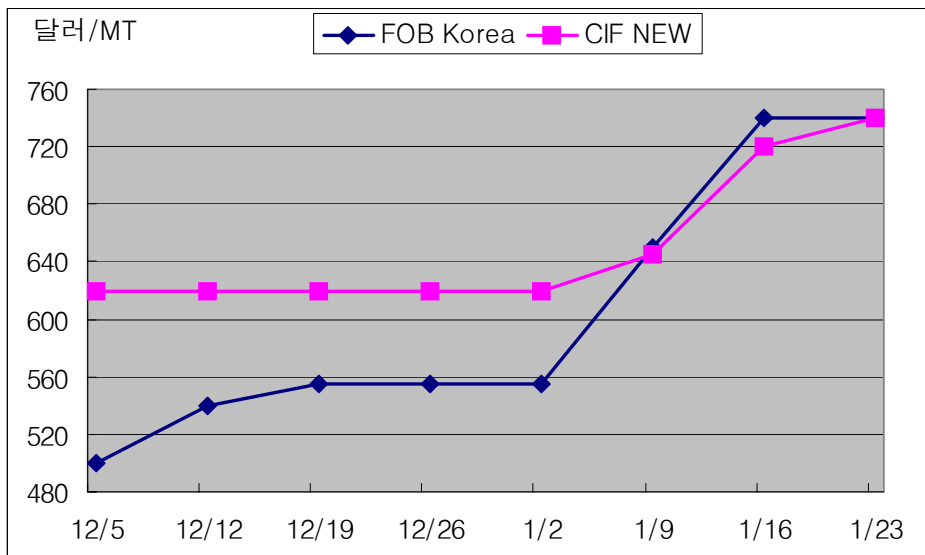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2004년 들어 Naphtha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, 나프타 가격은 1월9일 C&F Japan 톤당 369.0-390.5달러로 치솟았다. 이후 나프타 가격은 1월16일 343.5-354.5달러로 하락했으나 2003년 12월 말에 비해 약 19달러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.

1월 나프타 가격폭등은 중동 UAE(아랍에미리트)의 ADNOC(Abu Dhabi National Oil)이 플랜트 트러블로 인해 나프타 생산량을 10% 감축함으로써 2-3월 공급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몇몇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가솔린이나 부탄(Butane)으로 원료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SM, Vinyl 및 MEG 등 다운스트림 시장 강세에 힘입어 에틸렌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1월 에틸렌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 에틸렌 시장은 지속적인 수급타이트로 Spot 가격이 1월23일 CIF NWE 톤당 730-750달러로 20달러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으며 1/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580유로를 형성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1/28>